

보도시점 2023. 9. 12.(화) 10:00 (2023. 9. 12.(화) 석간)

## 건설근로자공제회, '가다'와 기능등급 연계 구인·구직서비스 개시

건설근로자공제회(이사장 김상인, 이하 공제회)는 9월 12일(화)부터 기능등급 연계 고용지원 서비스를 (주)웍스메이트 '가다' 앱을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.

지난 7월, 양 기관은 「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」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능등급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기능등급 맞춤형 구인·구직 서비스를 마련해왔다.

구직 희망 건설근로자는 건설기능플러스(<https://www.cw.or.kr/plus>)에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고 '가다' 앱에 등록하면, 기능등급제 기반의 일자리 등록 시 카카오톡 알림으로 제안받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.

이전까지 건설근로자는 현장 이동이 잦고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일을 하더라도 그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나, 기능등급제 도입 이후 기능등급 4단계(초급·중급·고급·특급)에 따른 경력 사항을 활용하여 구직할 수 있게 되었다.

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“이번 민간 구인·구직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직종별 기능등급을 활용하는 고용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”며 “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기능등급 활용채널을 넓혀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등급관리부	책임자	부 장	박수훈 (02-519-2101)
		담당자	과 장	송진욱 (02-519-2102)